

강용주의 '인권광장'



형제복지원, 숫자가 된 사람들

얼마 전 '숫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책의 추천사를 썼습니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11명의 피맺힌 목소리를 담은 구술 기록집입니다.

늦게 역에서 TV를 보는 사람, 술 취해 거리에서 자는 시민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따내기 위해 상품처럼 관리되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형제복지원의 수용자들은 이름 대신 몇 년도에 몇 번째로 들어왔느냐에 따라 78-374, 82-2222 등의 숫자로 불렸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프리모 레비가 떠올랐습니다. 유태인들도 수용소에 끌려가면 이름 대신 '174517' 등의 숫자를 왼쪽 팔뚝에 문신으로 새겼지요.

수용자의 숫자에 따라 보조금이 나오는데, 형제복지원은 87년 한 해만 무려 20억 원을 받았습니.

수용자들은 불법 감금당한 채 강제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고, 심지어 살해하여 암매장했습니다.

아우슈비츠도, 형제복지원도, 머리를 뺨백 깎이는 게 똑같습니다. 레비의 표현처럼 '머리카락도 명예도 이름도 없이, 날마다 구타당하고 추절하게 사는',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되는 거지요. 숫자가 된 사람은 제재와 격리의 대상이며, 짓밟고 학대해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물화된 존재'입니다.

12년 동안 1만 8000여 명, 많을 때는 한꺼번에 3146명이나 수용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망자만 최소 513명인데, 대부분은 굶어 죽거나 맞아 죽었다고 하니 생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형제복지원의 참상은 1987년 한 검사의 노력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간판을 달고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운영됐습니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고아·장애인뿐 아니라 방

하지만 박인근 원장은, 특수감금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횡령죄로 2년 반 징역을 살고 나오는 데 그쳤습니다.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보상은 이

루어지지 않았고, 생존자들은 여전히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인근 원장과 그의 가족들은 형제복지원의 이름만 바꿨을 뿐, 여전히 수백 억대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4-3618 한중선 씨는 2012년 여름, 국회의원사무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서 형제복지원의 민낯을 다시 세상에 알렸지요. 8살 때 11살 누나와 함께 형제 복지원에 끌려갔다 살아 나온 그는 '살아남은 아이'란 책을 썼습니다. 올해 7월 3일,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공청회에서 그는 절규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회정화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86년 아시아게임, 88년 서울올림픽을 목표로 해서 국가가 밀어붙인 것입니다. 전국의 공권력이 움직였기에 가능했던, 대한민국의 어두운 역사입니다. (...) 형제복지원의 기억이 저로 인해 다시 파헤쳐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트라우마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시오."

아우슈비츠의 고통을 세상에 이해시킬 수 없었던 프리모 레비는 절망 끝에 자살하고 맙니다. 그는 죽기 전에 씁니다. "괴물이 없지는 않지만 진정으로 위험한 존재가 되기에는 그 수가 적다. 더 위험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의문을 품지도 않고 무조건 믿고 행동하는 기계적인 인간들 말이다." 레비를 자살로 몰아간 것은 보아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을 애써 외면해 온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은 그날의 고통을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합니다. 30여 년 전의 과거는 언제나 오늘입니다. '84-3618'이라는 숫자로 배제되고 격리된 그 '사람들'에게 인간의 이름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림 잘 그리고 똑똑한 '한중선들'이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기계적 인간이 되지 않도록, 이제 평범한 우리들이 대담할 차례입니다.

<광주 트라우마센터장>

社說

박준영 전 지사 탈당, 신당 출현 기폭제 되나

야당의 정치적 뒷받침 전담에서 도지사를 3번이나 지낸 박준영 전 전남 지사가 어제 전격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했다. 당을 떠나면서 그가 남긴 말이 통렬하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몇 달 차례의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해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

그들이 원내교섭단체(20명) 구축을 목표표로 9월께 탈당을 결행할 것이라는 '거사설'마저 돌고 있다. 이래저래 새정치연합으로서 원심력을 제어할 힘을 거의 잃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태어나지도 않은 신당에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는 새정치연합으로서 최대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친노와 비노가 결국 '탄살림'을 차리던 내년 총선에서는 새정치연합과 신당 세력 간 정면승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박 전 지사의 탈당으로 그동안 물밑에서 설왕설래하던 야권 신당 논의가 급속히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전·후직 당직자와 당원 등 100여 명이 탈당해 신당 창당을 위한 실무작업을 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당이 지역이나 인물, 또는 오로지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해서 모여들 수밖에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 신당의 출현을 기대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신당 출현의 조짐은 소속 드러나고 있다. 호남의 중진인 박준선 의원은 어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탈당 및 신당 참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독자적인 신당 창당 추진 과정에서 기성정치인의 합류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당이 지역이나 인물, 또는 오로지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해서 모여들 수밖에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 신당의 출현을 기대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합리적 대선과 새로운 인물이 뒷받침되는 야권 신당이라면 의외의 폭발력이 있을 수도 있다. 호남 지역당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또 하나의 이합집산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전국 정당이라면 누가 마다하겠는가.

게다가 항간에는 비노(비노무런계)

입영 적체...군대 가는 데도 줄서야 한다니

최근 입영 적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군 지원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다 보니 제때 군대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입영 적체를 해소할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

년간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동반입대'의 경우는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입대 재수·삼수생까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올 누적 기준 입영 대기자 5만2000여 명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현역 관정을 받고도 입영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자는 5000여 명이 이른다고 한다. 이 가운데 올 하반기 입영이 가능한 2800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2000여 명은 올해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것이다.

이처럼 군대 가기가 힘들어진 데는 국방부가 군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단계적으로 6개월 단축하려다 3개월만 줄이면서 현재 입영 대상자가 수보다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전역 후 학업 계획을 세우고 입대를 서두르는 것도 적체 현상을 부추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가운데 올 하반기 입영이 가능한 2800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2000여 명은 올해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일반병 지원자는 다음 달 입영 신청을 할 경우 빨라야 내년 12월 에나 입대가 가능하다. 1년 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그 시기에 꼭 입대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 대기자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형제나 친구 등과 입대한 뒤 같은 부대에서 2

표적인 잡지로 만들겠다”(송광릉 대표)는 각으로 시작했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현자의 마을"은 지난 2012년 설립된 신생출판사다. 철학·대안학교인 광주지혜학교 철학연구소가 주축이 된 출판사로 '낙동'은 입문학이다. '삼국지 역사를 살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와 동네 골목길 지도를 만들고 최근에는 게스트하우스 '봄날의 집'도 오픈했다.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다양한 어젠다를 던져 온 '황해문화'가 인문에서 발간되는 계간지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던 적이 있다. '황해문화'는 지난 1993년 첫권을 낸 후 지금까지 통권 87호까지

종교칼럼

명상수행의 시작



일담 강진 백련사 주지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이른 새벽 좌복에 앉아 명상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하는 템플스테이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러지게 느껴지는 곳을 정해서 지켜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들고 나는 공기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동백숲을 깨우는 새들의 지저귐, 땀을 스치는 공기의 청량함, 스님들의 고요한 엄복소리... 이른 새벽 자리에 앉아 명상을 하면 매일 찾아오는 느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순간이면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가장 감명 깊었다고 토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숨 가쁜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산중에 있는 사찰이 줄 수 있는 선물은 도시의 일상과 거꾸로 가는 체험일 것입니다. 다뤄져처럼 햇바퀴를 도는 일상에서 벗어나 몸을 쉬게 하고 무수한 걱정과 번뇌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듀크대에서 불교학을 가르치는 일미스님은 미국에서 명상수행을 해 봤거나 하고 있는 사람이 인구의 30%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그들의 명상수행이 특정한 종교집단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뇌 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전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다스립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기술로 호흡에 집중하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호흡을 하면서도 그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들숨과 날숨의 시작과 끝을 알아차리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짓는 것도 있지만 내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행복”이라는 인류의 오래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마음수행 명상’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심지어는 일반화 되고 있다는 사실은 신선한 충격입니다. 재미있는 일은 미국에서 유행하는 명상의 내용이 불교의 참선수행과 거의 같지만 불교라는 종교색을 띠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일 때 호흡부터 달라 집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한숨이 나거나 떨리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호흡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립니다. 이러한 호흡관은 그냥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연습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하는 공부입니다.

그 생각을 쫓아가지도 그 생각을 막아서지도 않습니다. 그냥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생각이라는 것은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오직 숨이 들고 나는 것을 지켜보며 알아차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행복”이라는 인류의 오래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마음수행 명상’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심지어는 일반화 되고 있다는 사실은 신선한 충격입니다. 재미있는 일은 미국에서 유행하는 명상의 내용이 불교의 참선수행과 거의 같지만 불교라는 종교색을 띠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먼저 숨을 들이쉬고 내릴 때 코 끝에 느껴지는 숨결, 바람이 부딪치는 곳의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사람마다 코끝일 수도 있고 입술과 코끝 사이일수도 있습니다. 자꾸 옮겨 다니면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 바람이 가장 두드

그렇게 숨이 미세해지고 고요해지면 마음에 심상이 맺히기도 합니다. 심상이 나타나더라도 그냥 계속 호흡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백련사에서 하는 명상수행의 시작입니다.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자기를 바로 보면서 살 수 있게 하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기고

왕의 얼굴



유순남 수필가

학교에서 정치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을 때 “정치란 나를 버리는 것이다. 정치란 잠시 국민의 위임을 받아 봉사하는 것이다. 나를 버릴 때 원칙과 가치를 지킬 수 있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도 얻을 수 있다”며 원칙과 약속, 깨끗한 정치실천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다.

용감한 개혁을 실천하고 싶다”, “진영은 본질이 독재와 폭압이다. 진영의 논리를 벗어나, 포퓰리즘의 과열 경쟁을 자제해, 합의를 정치를 이끌어 가겠다”면서 “오로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책임의 정치를 일구겠다”고 당찬 소신을 밝혔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66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이 같은 그의 주장을 사회주의와 흡사하다고 비아냥거린다. 그러면 어떤가? 어디서 취하는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일찍이 성인도 주역 손괘에서 ‘임금이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겸손하여 아래에 있는 현자를 따르면, 세상이 누가 자기를 덜어서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더해지지 않겠는가?(人君能虛中自損, 以順從在下之賢也. 能如是, 天下孰不損己自盡以益之.)’라고 했다.

“백성의 얼굴이 왕의 얼굴이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국민의 고통과 행복이 대통령의 고통과 행복이 되어야한다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대통령은 과연 국민의 고통을 가슴 깊이 아파하는 지 아니면 남의 일로 치부하는지 아리송하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다고 했다. 이렇게 원칙을 지키려는 생각이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대통령의 ‘나를 버리는 일이며,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일’인지 묻고 싶다.

“정관치지”로 유명한 당 대종은 온 나라에 황충이 번창할 때, 직접 황충을 먹어서 없앴다고 한다. 그렇기는 못할망정 작년 세월호 참사 때나 얼마 전 메르스가 확산되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 때도 언론에 비친 우리대통령의 얼굴에서는 걱정하고 아파하는 표정보다는 일론 이 위기를 모면해야겠다는 모습이 비쳐졌다면 너무 왜곡된 표현일까?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퇴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퇴를 당했다. 새누리당의원들은 화를 품은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자기 손으로 세운 당 원내대표를 박수까지 치면서 끌어내린다.

또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국회원설을 통해 “고통 받는 국민의 편에서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지역출판사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